

소영재 2002 부산아시아게임 아리랑응원단 단장(통일을여는사람들 회장)

파도 타기 응원으로 통일 물결 일렁이고 ...

“우리는 하나, 실감한 기회였어요”

‘2002 부산아시아게임 아리랑 응원 단장’으로 활동한 소영재씨를 통해 아리랑 응원단의 활약상을 전해 들었다. 아리랑응원단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때, 부산통일연대 등 100여개의 시민단체와 북측 응원에 뜻이있는 개인으로 구성됐던 조직이다. 응원단원은 노인학교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고 한다.

아리랑응원단의 창설목적은?

북측의 부산아시아게임 참가가 뒤늦게 결정돼서 북측에서 응원단이 많이 오지 못할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측 응원단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취지는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었어요.

처음 북측 응원단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죠?

북측 응원단이 만경봉호 갑판위에서 손을 흔들며 항구로 들어왔어요. 그땐 생각이 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쁜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마중을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다시 만났다는데 감동해 눈물을 흘렸죠.

부산아시아게임에서의 역할은?

경기장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밤을 새워 만든 한반도 기와 티셔츠를 나눠주며 응원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 이후엔 북측 응원단과 함께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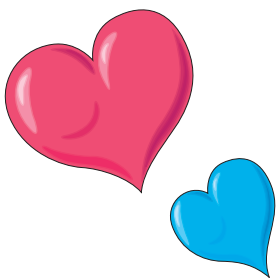
북측응원단과 아리랑응원단이 친해질 기회가 있었나요?

북측 응원단은 다대포항에 정박해 있었어요. 그때 일반시민들도 먼발치에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며 상당히 친분을 쌓았어요. 우리 응원단은 40여 경기에서 북측 응원단과 호흡을 맞춰 응원했죠. 그러는 사이에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북측의 첫 경기였던 남자축구 홍콩전에서 북측 응원단이 남측의 파도타기에 호응해 남북이 함께 파도타기를 했었던거예요.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환송이 쉽진 않았겠네요.

그들이 떠나던 날 다대포항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실향민, 응원 서포터즈 등. 차마 떠나는 뒷모습을 쳐다보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경찰들이 사람들과 만경봉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 시켰어요. 그런데 배가 떠나려 하자 너나 할 것 없이 경찰들을 제치고 항구로 뛰어갔어요. 갈수 있는 데까지 울면서 뛰어갔지요.

옥다혜 기자
odh5270@naver.com



김동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명예대표

“북녘에 생명을 건립했습니다”

부산에서 추진했던 평양항생제공장건립사업에 큰 기여를 했던 김동수 박사를 만났다. 지난해 8월 김 박사는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부산지역 각계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항생제공장을 준공하는데 일조했다. 평양을 고향으로 둔 실향민인 그는 현재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의 명예대표로서 서구의 내과병원 진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82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다.

박사님은 북녘에 가족을 두신 이산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6.25전쟁 때, 3.8선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헤어졌죠. 형제들 중 셋은 남으로 내려오고, 셋은 북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북측에 있는 동생들과 만났는데, 약 60년 만이었으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짝하더라고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나고 말이에요.

평양에 항생제공장을 건립하자고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섯살 때 척추를 다쳤었어요. 아주 오래전이니 제대로 된 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어서 상처가 계속 커졌었지요. 그러다 남측에서 항생제와 약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었죠. 그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북에도 이런 약들이 많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하고요. 아이들은 면역체가 약해서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유라면 이유죠.

항생제 공장을 세우면서 어려움이나 아쉬움은 없었는지요.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반공교육의 잔재가 남아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처음

에는 항생제 공장을 체계적으로 규모도 크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건상 불가능해서 김일성대학 내의 작은 2층 건물에 항생제 공장을 짓고는 그 뒤로는 제가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아쉽네요. 공장 돌아가는 모습이나 물량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해가면서 저희가 도움을 더 주고 했으면 남북 관계도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텐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녘에는 의료시설이 열악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북측의 아픈 아이들에게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면 상대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신뢰가 쌓이다보면 그게 바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거겠죠. 북측에 쌀 등을 주는 것을 가지고 퍼주기라 욕하지 말고, 형제 우애를 다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왕래하다보면 통일이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화정 기자
asdfs2002@naver.com



▲ 평양항생제공장